

2025년 상반기 전주 영화 후반제작 지원사업 심사평

이번 후반제작지원 심사는 단편과 장편을 아울러 총체적으로 창작자들의 고민과 역량, 그리고 현재 독립영화 제작 환경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제한된 제작 여건 속에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지와 기술적 고민이 뚜렷한 작품들이 다수 지원하였으며, 각 작품마다 후반작업이 단순한 마감 단계를 넘어 창작의 확장으로 작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편의 경우, 러닝타임 내에서 시의적 발상과 감각적인 장면 구성을 완성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으며, 특히 색보정, 사운드 디자인 등의 작업이 서사 전달과 연출적 의도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작품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작품은 후반작업의 구체적 계획이 미비하여 완성 가능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장편 부문은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를 갖춘 작품들이 지원하였고, 특히 작품에 대한 연출자의 확고한 방향성과 후반작업을 통한 완성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급, 상영, 영화제 출품 등의 향후 계획 또한 평가 기준의 중요한 축이 되었으며, 예산 운용의 현실성과 작업 일정의 실행 가능성 역시 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후반제작지원이 단지 기술적 마무리를 넘어서 창작자들이 끝까지 자신의 언어를 지켜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상반기 전주 영화 후반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단편 후반제작 지원사업 공모부분 선정작 <해질무렵>
- 전국 장편 후반제작 지원사업 공모부분 선정작 <베일러>
- 지역 단편 후반제작 지원사업 공모부분 선정작 <해방>
- 전국 장편 DCP 지원사업 공모부분 선정작 <내가 그린 오늘 그림은>